metro®

메트로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제3217호 www.metroseoul.co.kr

17일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물론 면세점 입점 브랜드와 겹치는 명동 상권의 일부 화장품·잡화 브랜드 상인들은 인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명동 화장품 거리는 살아남을까?

"그나마 없는 외국인 손님까지 재벌이 다 가져 가겠다는 것이냐?"
신세계본점 면세점 유치 추진에 남대문시장·명동상인들 반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 장소를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으로 결정하며 인근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면세점 입점 브랜드와 겹치는 명동 상권의 일부 화장품·잡화 브랜드 상인들도 신세계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입품이나 화장품 등의 경우 같은 제품을 재벌 면세점에서 강력한 마케팅과 함께 세금만큼 싸게 팔면 기존 중소 상인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회 "온몸 던져 반대운동"

남대문시장에는 약 300여 개의 수입상가가 입점해 있지만 최근 재래시장이 쇠퇴하며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다. 실제 기자가 17일 잡화 수입상가를 찾았을 때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내놓은 점포가 여럿 보였다.

수입상가 상인 김모(58)씨는 "신세계가 왜 강남점을 놔두고 남대문시장 옆에 면세점을 유치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으로 한다는 것은 그나마 몇 없는 우리 외국인 손님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조만간 수입상가 상인회 모임을 갖고 신세계의 면세점 유치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또 다른 상인 이모(49)씨는 "조만간 상인회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돈도 많은 재벌이 왜 우리같은 영세상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상인 박모(45)씨도 "같이 먹고 살 방법도 많은데, 면세점을 이곳에 한다는 걸 보니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것 같다. 신세계가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온 몸을 던져서라도 반대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명동 화장품 브랜드숍 "관광객 매출 나눠먹기"

인접한 명동 상권 내 화장품 브랜드숍 일부 매장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동을 찾는 요우커(중국 관광객) 매출에 기대 온 이들 브랜드숍은 기존 롯데면세점 이외에 신세계 면세점과도 관광객 수요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국내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합리적인 가격 때문인데, 신세계가 공격적 프로모션을 펼칠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브랜드숍 관계자는 "신세계 면세점에 같은 명동 입점 브랜드가 들어선다면 명동 매장은 당연히 매출을 유지하는데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며 "인근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매장이 있는 브랜드들의 명동 매장도 롯데면세점 때문에 손님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주요 화장품 브랜드숍은 명동 상권 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이니스프리는 각각 9개, 에뛰드하우스 7개, 더페이스샵과 토니모리는 각각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의 미샤와 어퓨도 각각 4개, 1개의 매장을 냈다.

신발·핸드백 등 여타 브랜드 잡화 매장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브랜드 잡화 매장 관계자는 "명동이 로드샵 개념으로 백화점과는 별도의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 지는 모르겠다. 고객은 나눠질 것 같다. 명동이나 남대문 같은 경우 일부러 찾아 와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신세계 면세점에 갔다가 명동거리로 한번 더 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롯데 면세점이 생긴 이후 일부 매장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아왔다. 신세계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매출 타격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며 "요우커 등 관광객 이외에 내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김성현·복현명기자 ksj0215@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대통령 반기문? 엇갈린 충청 민심

成 사태 연루… 충남 '싸늘' 충북 '흠집내기 불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을 앞두고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충청도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반 총장이 성완종 사태와 연루되면서 충남 민심이 싸늘해졌다면 충북에서는 반 총장 흠집내기에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충북에 연고를 둔 한 정치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반 총장에 대해) 충남과 충북의 정서가 다르다"며 "충북은 (충남이) 왜 반 총장을 성완종 건에 끼워 넣었는지, 이는 잘못된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 총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내에서는 충남과 충북의 각기 다른 민심을 짐작케 하는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충청 중진 의원은 "반 총장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 접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태에 관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다. 지금 (다들)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모두 충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충청 의원은 "내가 보기엔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이 반 총장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에 나가면 모를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반 총장이 정치인을 만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국내 정치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이 고향이다.

한편 반 총장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방한한다.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각각 예방하는 등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매번 귀국 때면 어김없이 고향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은 지난 달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UN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 대해 "오직 긴장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기대하고 있다. 가족들, 특히 손자들과 보내고 싶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반 총장 자신의 차기 대권 출마를 막고자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주장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성 전 회장을) 충청포럼 등 공식 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와 대화하는 케리 미 국무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군 특수부대 'IS 금고지기' 사살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금고지기를 사살하고 그의 아내를 생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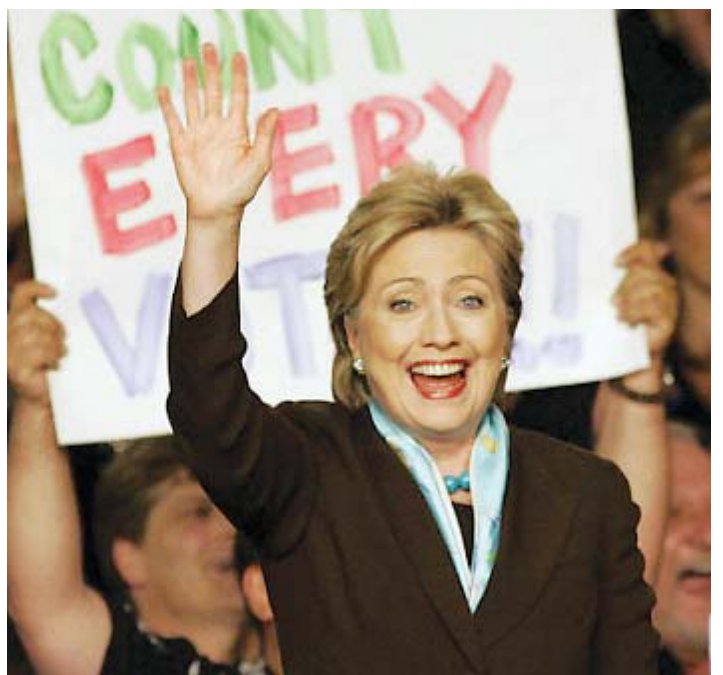
16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동부 알아므르에서 아부 사야프로 알려진 고위 지도자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는 작전을 실시했고 이 작전 중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같은 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성명을 통해 재확인됐다. NCS는 "아부 사야프는 IS의 불법적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운영을 감독하는 고위 지도자"라며 "그는 IS의 군사작전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NCS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의 권고에 따라 이 작전을 지시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군은 IS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투입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클린턴 부부, 강연할 때마다 '3억원' 벌어

미국 중산층을 대변해 온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지난 16개월 동안 100차례가량 강연을 통해 최소 3000만 달러(326억원)의 강연료를 벌어들였다. 1회당 평균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강연료의 출처를 감안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린턴 부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강연을 통해 이같이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힐러리 캠프는 클린턴 부부의 순자산이 1300만~5270만 달러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집과 연방퇴직연금, 가구와 예술 소장품, 대통령 재임 때 기념품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클린턴 부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500만~2500만 달러를 뱅가드 S&P 지수 펀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부부의 재산은 미국인 가운데 상위 1% 안에 든다. 상위 1%는 2013년 기준으로 720만 달러가 최소액이다.

/송병형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여야 중점법안, 국민은 얼마나 찾아봤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순위
공무원연금법 8위, 국회선진화법은 10위에

최근 청와대와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법안은 건축법이다. 이어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의료법, 지방재정법, 주택법 순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어 8위, 공무원연금법은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9위를 차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개정은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를 유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로 평가된다.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던 다른 법안들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개정안이 불발된 여파가 컸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4월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여야 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상정이 미뤄져 다음 본회의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법과 의료법도 역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논의조차 기약이 없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 처벌과 성형광고 제한,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인 명찰 착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열린 국회 마당' 행사의 하나로 열린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들이 역동적인 경연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뒤로 보이는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의 눈물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상구 열사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 즉각적인 당원권 정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홍 지사의 국회 대책비 용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홍 지사가) 집에 (갖다줘) 생활비로 쓴 건 잘못됐다"며 "저는 마누라한테 갖다준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때 나오는 국회 대책비 가운데 당 정책위와 야당 등에도 나눠주고 남은 돈의 일부를 집에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내주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단합과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를 가급적 이번 주 중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위원장과 위원 인선 등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5·18 광주행에 앞서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기구에서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쇄신안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 받게 된다. 다만 합의한 내용은 절차적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구성을 위해 위원장 인선 등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혁신기구의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경기자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이상'은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300만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에 해당한다.

횡령·배임 관련 범죄와 같은 수준이다. 종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 범죄만 해당됐다.

공무원들의 징계 회피 꼼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종전 공무원들은 자신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퇴직해서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중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퇴직 뒤에도 퇴직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비위행위로 파면된 경우는 퇴직급여의 2분의 1, 금품 비리에 연루됐을 때는 4분의 1이 감액된다.

정직·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보수 전액이 감액된다. 종전에는 3분의 2가 감액됐다.

/송병형기자 bhsong@

'5·18기념재단' 왜 이러나 해고투쟁·고소·고발 잇따라

오재일 전 이사장·인권활동가 등 11명 고소… 관할서 참고인 조사

5·18민주화운동 35주년 앞두고 '광주 5·18기념재단'이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1994년 출범한 5·18재단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이들을 도운 인권활동가 등 1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5월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고소한 오재일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고 현재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률적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5·18기념재단지회에 따르면 오 전 이사장은 해고 투쟁에 나선 직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자원 활동 대학생, 직장인, 노조 지부장 등 11명을 4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올해 초 해고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 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의 해고 투쟁을 돕는 과정에서 오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고소된 이들은 지난 13일 지부장을 시작으로 관할인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사업목적전문직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정씨와 박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근무 평가나 이유도 없는 사실상 해고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5개월이 되도록 이유를 듣지 못했다.

재단 노조에 따르면 2005년에 국비지원을 시작한 재단은 2년 뒤 사업목적전문직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연장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재단이 ▲계약직 노동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 계약서·재단내규 고용 및 계약 갱신의 절차 이행 등을 위반했다며 정씨와 박씨에 대한 해고를 징계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오 전 이사장의 독단적 재단 운영 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초 갑작스런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박씨는 "근무 평가를 한 뒤 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단은 올해 1월 8일 출퇴근 전자시스템과 급여시스템 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재단 측이 두 달만 연장하자고 해서 (올해) 1월 10일까지 근무한 뒤 해고됐다"며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 전 사장이 계약 만료의 이유로 지목한 '열악한 재정상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장이 바뀐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임금 문제 때문이냐"는 물음에 이사회 측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자치부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절반인 1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사업이 많아 한시적으로 밀린 탓이지만 재단의 예산 편성이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은 지난해 광주시와의 업무 중복, 불용예산 등으로 예산 4억 6천만원을 반납했다. 정규직은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정씨와 박씨가 속한 사업목적전문직은 국비로 운영된다. 예산 축소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1순위로 이들이 지목된 것이다. 이들은 3월 30일 전남노동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27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사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오 전 이사장의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남지부는 전국대표자 성명서를 통해 "오 전 이사장의 고소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즉각 시정이 아닌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해고·고소 사태와 관련해 ▲시정보다 법적 해결 중시 ▲노동 3권 무시 ▲잘못된 선례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5·18재단의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고는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것을 권고했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쟁의활동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중재 의지에 대해선 "이사회 측에서도 오 전 이사장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광주 5·18기념재단'이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5·18기념재단지회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제 3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 마련된 5·18 민주화운동 '난장' 행사장에 추모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法, 김병관에 부과 증여세 취소 판결

<네이버 계열사 웹젠 의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네이버 계열사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46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2006~2007년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NHN게임스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가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하면서 김 의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

김 의장은 세무당국이 NHN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에는 NHN게임스의 존속 가능성이 의문시됐던 점, 김 의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NHN게임스에 대한 NHN의 자금지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

/유선준기자

檢 '이완구' 혐의 사실보다 당시 정황 파악

홍준표와 다른 수사 전략 적용

검찰 특별 수사팀(팀장 이완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수사에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와 같은 듯 다른 '깜깜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핵심인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를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신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사실보다는 돈을 받게 된 배경·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사 기법은 1억원 수수 혐의로 지난 8일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적용됐다. 먼저 수사 전략을 노출해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팀은 지난 13일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 소환조사에서는 한두 번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한 게 2013년 4월 4일이 맞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동안 수차례 소환된 홍 지사 측근에게조차 일절 금품수수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4월 4일'은 수사 초기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금모씨 등이 금품이 오간 시점으로 언급했으나 이후 '4월 7일', '3월 28일' 등으로 다소 엇갈린 진술이 있었다. 금품 전달 수단도 처음에는 '비타 500 상자'가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쇼핑백'에 담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돈 배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홍 지사 의혹에 비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수사팀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수수 시기·장소를 함구하고 김 비서관한테는 이를 '가볍게' 추궁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사 대응에 애를 먹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전 총리 측은 소환조사 이래 사흘째 이날까지 검찰에 제출할 소명자료 선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자기방어권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소환조사에서 "2009년 말 충남지사직을 사퇴한 뒤 미국·일본 등을 유랑하고 이후 암투병을 하면서 2013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 성 전 회장을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당의 충청권 정치인으로서 성 전 회장이 아마 캠프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차를 대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워낙 많은 정치인이 캠프를 찾아 누가 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준기자 rsunjun@

檢, 세번째 타깃 홍문종 유력

리스트에 2억 적시된 서병수 부산시장도 거론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세 번째 타깃이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굳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강도높은 조사에 이어 세 번째로 홍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홍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위 관계자 김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씨가 그 돈을 홍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대해 김씨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 전 부사장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았고, 홍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이 성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김씨를 소환조사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설도 퍼지고 있다. 만약 김씨가 홍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면 리스트에 2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시된 서 시장이 유력하다는 내용이다. 서 시장이 대선 당시 캠프에서 당무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당시 별도의 비밀 캠프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음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설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 시장의 경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부산시장', '2억원'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의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단서나 정황 역시 포착되지 않았다.

그밖에 지난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이 여야 인사 3명에게 각각 1억~3억원씩 총 6억원을 건네기 위해 '돈 가방'을 마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홍 지사 측 인사 P씨의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P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10월 여의도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이 든) 가방을 드는 것을 봤다"며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P씨는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네지 않고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인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단초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본질을 흐리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상명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명인특강

현실정치 참여 질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상명대학교(총장:구기헌)의 교양과정 중 하나인 명인특강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가브랜드와 공존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15일 밀레니엄관에서 진행된 75분동안 오 전 시장은 '국가브랜드와 공존의 가치, 그리고 페루와 르완다에서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전 시장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분야별 세계순위와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브랜드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서로 공존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알지만,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최치선기자

서울여대, 창의성 전문가들과의 만남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은 14일 인문사회관에서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창의성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서울여대가 ACE사업(학부교육선도대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서울여대에 따르면 학생들의 창의적 전문성 함양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 그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창의성 발휘의 경험담을 직접 들음으로써 창의적 인재로서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창의성 특강의 두 번째로, 박웅현 TBWA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을 갖는다. 특강은 20일(수) 오후 4시30분, 50주년기념관 210호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

성신여대 '캠퍼스 뮤지엄' 개관식 성료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의 '캠퍼스 뮤지엄' 개관 행사가 14일 성신미술관에서 문화계·교육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캠퍼스 뮤지엄'은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강의실 벽과 복도에 설치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승 김영재 류민자 민경갑 유휴열 유희영 전뢰진 전준 제정자 최만린 최예태 등 '캠퍼스 뮤지엄' 작가 11명 외에 홍라영 리움 총괄부관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등 문화계 인사, 손희자 경기대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운정그린캠퍼스 설계 당시부터 계획하고 꿈꾸어 오던 성신캠퍼스미술관이 11분의 문화예술 선구자들을 만나 개막하게 됐다"며 "새로운 형식의 문화운동이 우리 대학을 필두로 다른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 제6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가 열려 무지개빛 언어에 날개를 달아줄 다문화 참가자들이 손을 흔들며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서산장학재단 전격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 배제 못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 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설립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15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장학재단은 장학 목적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정치 사조직 또는 비자금 조성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학금 모금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비롯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한 비자금을 세탁했는지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분석 중이다.

리스트 속 인물 중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은 모두 당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정치인들이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경우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첫 타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

범현대가, 광주 태전동서 분양 맞대결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같은 날 분양 돌입

부동산시장 침체, 송전탑 지중화 사업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경기도 광주 태전·고산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동시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3786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쏟아내는 것.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분양인데다 범현대가가 맞대결을 벌이게 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스테이트-아이파크, 입지 비슷

현대건설이 태전 5·6지구 C4~C9 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태전'은 지하 3층, 지상 10~23층, 전용면적 59~84㎡, 전체 3146가구 규모다. 5지구 ▲C4블록 405가구 ▲C5블록 597가구 ▲C6블록 459가구, 6지구 ▲C7블록 556가구 ▲C8블록 620가구 ▲C9블록 509가구다.

현대산업개발이 태전 4지구 C3 블록에 공급하는 '태전 아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22~25층, 전용면적 59~84㎡, 전체 640가구로 이뤄졌다. 전체 규모는 '힐스테이트 태전'보다 작지만 단지별(블록별)로는 가장 크다.

4지구와 5지구는 나란히, 4지구와 6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입지는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가 비슷하다. 4지구와 6지구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된 것도 같다.

하지만 힐스테이트는 부지 내 경사가 심한 아이파크보다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파크는 공장시설 2곳과도 인접해 있다.

힐스테이트도 약점은 있다. 지중화 예정인 송전선로가 힐스테이트 주변으로 계획돼 있는 것. 현대건설 측의 "송전탑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는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보다도 낮다"는 설명에도 모델하우스를 찾는 방문객들은 "그래도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태전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상품은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아이파크

상품은 대단지의 장점을 앞세운 힐스테이트가 우위라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공급이 적었던 전용면적 59㎡를 전체의 80%에 가까운 2569가구로 계획했고, 틈새평면인 64㎡와 72㎡도 배치했다. 총 12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59㎡는 소형임에도 4-bay 설계를 적용, 서비스면적을 최대 33㎡(10평)까지 넓혔다. 이로써 20평대로 30평대 공간감을 확보했다. 주차구획폭은 2.4~2.5m로 기준(2.3m)보다 10~20cm 확대해 대형차량도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했다.

아이파크는 59㎡(70가구)보다 84㎡(570가구)에 무게를 뒀다. 59㎡는 무난한 3-bay 평면을 선보였고, 84㎡는 2개 타입에 그쳤다. 다만 84B타입의 경우 타워형임에도 개방감을 극대화한 3-bay로 설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보통 타워형은 2-bay로 만들어진다.

분양가는 아이파크가 힐스테이트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낮게 책정됐다. 59㎡는 아이파크가 2억5850만~2억7300만원, 힐스테이트가 2억8021만~2억9163만원이다. 84㎡는 각각 3억4600만~3억6560만원, 3억7939만~3억9642만원이다. 계약금 10% 2회 분납,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은 같다.

청약일정은 두 단지가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아이파크가 20일과 21일, 힐스테이트가 21일과 22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대림산업 '수지 e편한세상 시티' 견본주택 개관 당일 2000여명 방문 대림산업은 용인 '수지 e편한세상 시티' 견본주택에 개관 당일에만 2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말까지 3일간 약 7000명이 다녀갈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대림산업 제공

월세 상품 '뉴스테이' 지방에 적합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올해 수도권 4개 지역에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5529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셋값과 급속한 전월세 전환 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퇴거 걱정 없이 8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293가구) ▲서울 중구 신당동(729가구) ▲인천 남구 도화동(2107가구) ▲수원 권선구 권선동(2400가구)에 공급된다. 보증금 1000만~1억원에 월 임대료 43만~110만원 선이다. 오는 7월 대림동 사업장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업장 지역들이 뉴스테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 비중이 월세보다 높기 때문에 월세 상품인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4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세가구의 비율은 ▲수도권 28.1% ▲광역시 15.5% ▲도지역 9.1%다. 월세가구의 비율은 ▲광역시 25.7% ▲수도권 24.0% ▲도지역 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높은 지방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임대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729가구 공급이 결정된 신당동의 작년 한 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384건이다. 뉴스테이 293가구가 지어질 영등포구 대림동은 지난해 138건의 거래량을 보였다.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 역시 아파트 월세 거래가 단지별로 한 달 2~3건에 그치고 있다. 2107가구가 공급되는 도화동은 내년 말 인천시 임대주택 '누구나 집'(520가구) 입주도 앞두고 있어 충분한 수요가 따를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로또복권 제65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4	7	11	31	41	3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849,298,9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2,764,795
3등	5개 숫자 일치	1,308,94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고객수익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꾼 삼성증권의 혁신 – POP UMA®

최고 중의 최고만 모아 끝까지 안심시켜 드리는 **풀코스 자산관리!**

오직 고객의 수익률을 위해
삼성증권의 모든 역량을 담은 POP UMA®
삼성증권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삼성증권 POP UMA®

Course 1.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자산배분

Course 2.
엄선된 최고 상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Course 3.
시장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주는 안심 사후관리

Course 4.
고객 이익 우선의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POP UMA® 란? 국내외 주식,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하나의 계좌에서 고객의 투자 목적에 맞는 솔루션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로서 고객님과 담당PB와의 일임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일임서비스입니다

■ 전화로! Family Center 1588-2323 ■ 인터넷으로! samsungPOP.com ■ 스마트폰으로! mPOP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삼성 POP UMA랩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일임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 POP UMA랩은 계좌별로 관리, 운용되므로 각 계좌별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삼성 POP UMA랩은 타입별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예시: A타입-편입자산별 정률수수료+연 0.05%, B타입- 연 1.8% 정률수수료, C타입- 연 1% 정률수수료+성과연동 수수료)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5-02650호 (2015-04-15 ~ 2016-04-14)

'통합행명에 외환품겠다'… 김정태 승부수 통할까?

노사 갑론을박 여전 내달 중순 최종 결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조기통합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조건 유지 등 고용 안정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지난 한달 간 노사간 대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 행명에 피인수은행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 통합행명에 'KEB·외환' 포함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노조 측에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제안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 제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5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SC제일은행'이란 명칭을 7년간 쓴 것을 제외하면 국내 은행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측은 "인수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건 은행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합은행명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김 회장의 '조기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을 내놨지만 '5년간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합의서에 발목이 잡혀온 것.

아울러 하나금융은 현재 법원의 가처분 용인에 따라 6월 말까지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파격적인 합의서를 제시, 내달 중으로 나올 이의신청 결과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셈이다.

인원감축이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의미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 체제 등의 근로조건은 기존처럼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실시하지 않기로 한 점은 임직원 간의 업무 스트레스나 합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스처이기 때문이다.

실제 외환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제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행명 또한 외환은행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노사 간의 힘겨루기에 가운데 낀 임직원의 피로감과 불안감도 크다"며 "노조 역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놔서 노사간의 타협점을 조금씩 좁혀갔으면 하는게 직원들의 대부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의서가 공개된 직후에도 노사의 공방은 지속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합의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양 은행의 장점이 계승돼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가 되도록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속에서 조직과 직원의 생존을 위해 고심 끝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외환' 통합은행명에 포함,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의 파격적인 양보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17 합의서의 기본 정신인 '상호 공동의 이익 증진'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며 "조기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너지 창출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환노조는 "하나금융 측에서 '외환포함'을 약속한 바 없다"며 "행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자체를 밝힌 바 없고 심지어 대화단의 협상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측은 "통합에 관련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통추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으로 외환노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 결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요약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통보하며 대화 재개도 권고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저금리 장기화… 장기상품으로 재편해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현행 퇴직연금의 운영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상품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2.2%(98조7000억원)에 달한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8%(6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만기 1년 이하 단기성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국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중 78.6%는 저리형 단기 안전자산인 만기 1년 이하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다.

주요 시중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가 판매한 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상품의 2015년 1분기 운용수익률은 최저 0.62%에서 최고 0.75%로 연율로 환산 시 2.48~3.00% 수준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70%를 넘는 것에 반해 확정기여형(DC형)은 21%에 불과한 점도 우려된다.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DB의 경우 운영환경 악화로 기업이 퇴직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 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성장으로 사전에 약정한 퇴직급여를 채우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이나 CB(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전환하는 추세다.

DC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CB형은 DB형 퇴직연금의 장점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OECD 주요국들은 저성장때문에 기업부담 가중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법적·제도적으로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미국과 영국의 경우 인수방식(Take-over)으로 국가가 퇴직연금을 직접 보장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민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우리은행, 인천공항영업점 개점식 개최 지난 1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인천국제공항영업점 개점식'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최문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진선 경찰대장 등 공항 관계자들, 조규영 서울시의회의원을 비롯한 거래기업 관계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통화안정증권 185조원 돌파…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의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5조원을 돌파했다.

'통안증권'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발생한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한은이 발행하는 증권이다. 과다한 달러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한 원화 자금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뒤 시중에 풀린 원화는 통안증권을 발행해 흡수하는 방식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85조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조9000억원(8.1%)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통안증권 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000억원부터 2013년 163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전년 동기대비 9.5%나 늘어난 180조5800억원으로 180조원 선을 넘어섰고 지난 3월 184조94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는 4월에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등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가 37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41.9%나 늘어난 103억9000만달러로 사상 3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3월의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127조9000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하나銀 '삼둥이'로 고객·애국심 두토끼 잡았다

'대한민국만세 예·적금' 출시 9일 만에 10만좌 돌파

'광복 70주년의 행복' 광고 광고포털 TVCF 1위 선정

하나금융그룹이 대한민국만세를 내세운 새로운 광고를 잇달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백마디 말보다 톡톡튀는 감성마케팅 하나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중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광복 70주년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TV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상품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외환은행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중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을 내놨다.

예·적금은 김정태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개발부터 출시, 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진행한 작품이다.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항거 정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상품은 출시 9영업일 만에 10만좌를 돌파 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만세'의 귀여움이 한몫을 했다.

'광복 70주년', '애국심'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한 주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양은행은 '대한민국만세'하면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둥이를 모델로 기용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내 삼둥이 테마곡인 '세쌍둥이송'을 개사했다.

이를 통해 '광복70주년'을 향한 하나은행·외환은행의 외침을 밝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은행 측은 언급했다.

실제 삼둥이 밴드와 '대한민국만세송'의 활약으로 TV광고는 공개 직후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광고 포털 TVCF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후 대한민국만세송 풀버전과 함께 공개된 기부 프로젝트 '100만 만세 함성 도전' 영상 역시 유튜브 조회수 100만 달성과 동시에 3주만에 조기 종료되며 많은 참여를 끌어 냈다.

작년말 통합카드사로 첫 발을 내디딘 하나카드 역시 삼둥이를 통해 둘보다 큰 '하나'라는 메시지를 광고에 녹였다. 광고는 고객 개개인을 일인칭 '나'라고 지칭해 하나SK와 외환카드가 서로 '나'만을 바라보겠다는 키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배우 송일국씨의 세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를 모델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각자에 맞는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은행·외환은행 캠페인을 담당한 대홍기획 유지혜 AE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모습보다는 삼둥이들이 음악, 악기와 어울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고자 했다"며 "삼둥이를 향한 애정 가득한 시선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세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광복 70주년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한민국만세 정기예·적금'은 일반적인 상품 가입좌수 증가속도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0만좌 달성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광고캠페인과 상품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독립에 대한 자존심을 잊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광고모델도 국민 삼둥이(송대한, 송민국, 송만세)가 맡아 '광복 70주년'이라는 주제를 좀 더 친숙하게 다가 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금감원 Q&A

기초생활급여통장 압류 구제하려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원천 예방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유로 제 기초생활급여통장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지정된 급여(생계·주거·의료·자활 등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압류금지 예금과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이 생계형 예금 등임을 소명해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일과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김민지기자

글로벌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박스권 지속

| 주간 증시전망 |

이번주(18~22일) 코스피는 2100선을 유지하며 숨고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국내 기업 실적이 호조이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이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 지속,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은 지수 상승폭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코스피가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여파로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2100선으로 밀려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8원 내린 1085.7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대비 1.6% 상승한 2106.50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3% 상승한 705.40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 자금유입이 주춤한 반면 개인투자자가 증시의 매수주체로 활약했다.

이번주에는▲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21~22일) ▲4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21일) 등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양적완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4월 FOMC 회의록에서는 1분기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승희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의 고용지표도 금리인상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외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수준에서 크게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업종은 음식료와 유통 등 내수주의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내수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김보배기자 bobae@

갈 길 먼 이재용 삼성 승계

공익사업 재단 이사장 선임
상속세 편법 절세 우려 높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승계 절차로 공익 사업 재단을 물려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지난 1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이 부회장을 선임했다.

두 재단은 삼성그룹의 공익·문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호암 이병철 창업주의 창업정신이 깃들어 있는 만큼 오너가가 대대로 이사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을 이어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8년과 1992년 두 재단 이사장직에 올랐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선임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단의 지분 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법의 성실공익법인면세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두 재단은 지난해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에 넘기고 두 재단을 이 부회장이 지배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상속 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과거 삼성이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계열사 주식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과거와 같이 편법으로 절세를 노린다면 그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삼성은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만큼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는 법이 정하는 대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성화재 3.06%, 삼성증권 0.25%, 삼성전자 0.02%, 삼성물산 0.07%, 제일모직 0.81%, 삼성SDI 0.58%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삼성생명 지분 2.18%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계열사들의 사업 조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 시도가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은 전자·금융·건설 분야를 중심 사업 축으로 그룹을 재편하려 했지만 건설쪽 계획이 어긋났다. 때문에 합병 후 계획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개편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복지시설 에어컨·컴퓨터 수리… 전국서 재능기부

삼성전자서비스 봉사활동

지난 16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수원의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에서 제습기 등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서비스는 전날 '제10회 재능 나눔 봉사활동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수원·부천·대전·광주·경산·김해 등 전국 7개 지역 10곳에서 진행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006년부터 '재능 나눔 봉사활동의 날'을 지정해 제품 수리 기술 등 임직원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처음으로 가족들도 참여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봉사 장소의 종류와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에어컨·컴퓨터·세탁기·TV 등 복지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460여 개 전자제품의 점검과 무상수리에 나섰다.

김해에선 임직원 가족의 재능 기부 형태로 이·미용 봉사 활동도 진행됐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봉사 지역에 TV·세탁기·냉장고·선풍기 등 총 93대의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유희상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는 "특히 올해는 임직원과 가족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어느 해보다 뜻깊었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 수리 기술력을 활용한 봉사활동뿐 아니라 임직원의 다양한 재능과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정기자 eunj71@

LG화학－中 장성기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LG화학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 장성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측은 장성기차가 2017년부터 양산할 차세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중국 내 수주 물량을 20만대 확보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사측은 계약상의 이유로 모든 고객사를 밝힐 수 없지만 장성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완성체 업체들과 수주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 추가로 수주한 물량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측은 올해 말까지 중국 남경에 연간 10만대 이상의 순수전기차(EV)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방침이다.

권영수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주로 중국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며 세계 최대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며 "2016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EV 시장에서 확실한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기자 yonggi@

VS

삼성 SUHD TV　　LG 올레드 TV

글로벌 소비자판정단의 선택은?

프리미엄 TV 전쟁 2라운드
삼성·LS "밀리지 않을 것"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전쟁' 2라운가 달아오르고 있다. 올 초 나란히 자사의 기술력을 집결한 신제품 TV를 공개한 양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삼선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입힌 SUHD TV를 전면에 세웠다. LG 전자는 울트라 올레드(OLED) TV와 퀀텀닷 기술이 들어간 슈퍼 울트라HD TV로 '듀얼 프리미엄' 전략을 세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프리미엄 TV 출시 지역을 확대하며 판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사업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양사 TV사업이 2분기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중요하다. 중국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중·저가 제품군에 비해 이익이 크고, 기술 선도업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분기 들어 액정표시장치(LDC) 패널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TV제조사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우선 출시했던 프리미엄 TV SUHD TV를 2분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8%에서 올해 1분기 11%로 확대된 프리미엄급(UHD·커브드 등) 제품의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까지 울트라 올레드 TV를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에 순차 출시하며 세몰이를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5종이었던 올레드 TV 모델 수를 10여종으로 확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슈퍼 울트라HD TV를 더해 프리미엄 TV 시장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화질과 기능 모두 자사의 제품이 뛰어나다며 경쟁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 모두 "올해 프리미엄 TV가 화질과 기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LG전자 'G4' 글로벌 정벌 나선다

180개 이통사서 출시키로

LG전자가 'G4'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이달 말부터 홍콩·터키·러시아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약 180개 이동통신사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G4는 지역별·국가별 기호에 맞춰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2개의 유심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듀얼심 버전도 출시된다.

LG전자는 글로벌 출시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천연가죽 커버에 대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죽 후면커버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있다. 또한 15개국에서 4000명의 G4 사전 체험단을 순차적으로 모집하고 G4의 카메라와 천연가죽, IPS 퀀텀 디스플레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G4' 스마트폰 9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해외 유력 매체들은 G4 출시 전부터 호평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드로이드폰 중에 최고 카메라(The Best Camera on an Android)'라는 기사제목으로 "아이폰이 긴장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방송사 폭스TV는 G4 화질에 대해 "놀랍도록 아름답다(Stunningly Beautiful)"고 극찬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귀뚜라미, 내수부진에 중·러 시장 공략

베이징·모스크바 전시회서 친환경·절약형 모델 선보여

귀뚜라미가 지난해 비교적 포근했던 겨울 날씨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보일러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가량 떨어지자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작년 영업이익은 285억1940만원으로 2013년 358억777만원보다 20.4%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5435억5525만원으로 전년 5828억4513만원에 비해 6.7% 감소했다.

이에 귀뚜라미는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5월 중국 북경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제품과 스마트폰 원격제어 기술을 탑재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공개했다.

귀뚜라미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 위생·냉난방 공조 전시회'에 참가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현지 환경을 고려한 저녹스 친환경 가스보일러를 비롯해 보일러 원격제어 솔루션,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신기술을 공개했다. /귀뚜라미 제공

귀뚜라미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비즈니스포털 트레이드 닥터가 지난해 공개한 2013년 중국 가스보일러 생산량은 1184만대로 2012년(1121만2600대)보다 5.3%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1587만7000 달러로 2012년 1044만5000달러에 비해 52% 증가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가스보일러 점유율은 2012년 기준 5.6%이고, 연간 수출량은 약 2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러시아 현지 배급망을 10여개 확보한 상태다.

우선 귀뚜라미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에서 안정적인 가스연소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최소화한 특수설계 버너를 적용, 친환경 등급을 높인 저녹스 보일러를 선보였다.

극한의 기온을 보이는 러시아에선 1·2차 열교환기 없이 저온 저압 상황에서도 하나의 '하이핀 저탕식 열교환기'로 가스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공개했다. 또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각종 기능을 작동하고 A/S까지 접수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제어시스템도 공개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해외 대표적인 보일러업계인 독일 바일런트, 비스만, 영국 박스 등처럼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하고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보일러 연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구자열 회장 "에너지 효율분야로 협력 확대"

中 LS우시산업단지 방문 사업확장 모색 현장 경영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중국 LS 우시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쳤다.

LS그룹은 구자열 회장이 중국 사업 현장을 사외이사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최근 중국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LS 우시산업단지를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을 비롯한 사내·외 이사 8명은 14일부터 3일간 중국 우시지역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LS의 중국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산업단지 내 LS전선, LS산전, LS엠트론, 대성전기의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LS그룹은 우시 뿐만 아니라 홍치전선, 호개전기 등 중국 내 현지 기업을 인수하고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등지에 생산·판매법인, R&D 센터 20여 곳에 거점을 확보하는 등 중국과의 사업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 14일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중국 우시산업단지에 위치한 LS산전 생산법인을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다. /LS그룹 제공

구 회장은 왕천 우시 시장(우시 시위 부서기)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제조업 역시 그간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 등 LS가 가진 에너지 효율 분야로 사업 협력 범위를 확대해 우시가 중국 산업발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기자 eunj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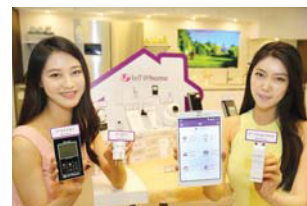
도어락·온도조절기 등 6가지 첫 선

LGU+, 홈 IoT 서비스 시연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홈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1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신사옥에서 열린 홈 IoT 서비스 시연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하반기 출시될 10여개의 홈 IoT 서비스 중 8가지를 선보였다.

U+스위치, U+플러그, U+에너지 미터, U+오픈센서, 도어락, 온도조절기 등 6가지 IoT 서비스가 처음으로 공개되고 작년에 출시된 가스락, 홈CCTV 맘카2 등의 서비스가 함께 시연돼 본격적인 홈 IoT 플랫폼의 출시를 알렸다.

LG유플러스는 'IoT@홈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운영해 다양한 제조사, 개발사, 서비스 제공 회사와 함께 선순환의 IoT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17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홈 IoT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IoT@홈은 무선 통신 솔루션 지웨이브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홈서비스를 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손잡고 에어컨, 냉장고 등 홈챗 가전제품과 IoT@홈 플랫폼을 연동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달 말 전국 상용화를 통해 연내 10여개의 홈 IoT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임은정기자

KT, 色다른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S6 '블루토파즈' · S6 엣지 '그린 에메랄드'

KT(회장 황창규)는 다음날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 신규 색상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색상은 갤럭시S6 '블루토파즈'와 갤럭시S6엣지 '그린에메랄드'다. 지난달 10일 출시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색상은 화이트, 블랙, 골드 등 3종이다.

갤럭시S6 신규 모델의 사양과 기능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다. 단, 갤럭시S6엣지 그린 모델은 64GB, 128GB 모델로만 출시한다.

KT는 다음달 7일까지 갤럭시S6 시리즈 '블루', '그린' 모델을 개통한 고객이 다음달 14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할 경우 기어VR for 갤럭시S6(60명), 어벤저스 무선충전기(300명), 그리고 어벤저스 에디션 노트(300명)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도원 KT 무선단말담당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그린, 블루 색상 모델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6 시리즈와 KT의 파격적인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18일 출시하는 갤럭시 S6 블루 토파즈(왼쪽)와 갤럭시 S6 엣지 그린 에메랄드.

/임은정기자

대한항공, 내달 국가유공자 30% 할인

국내선 이용 동반가족 1인까지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임무유공자 할인은 올해 6월 특별히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된다.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소리기자 10sound@

홈플러스 "유방암 환우들과 함께합니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16일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유방암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핑크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방암 예방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홈플러스 '핑크플러스 캠페인'은 '엄마의 건강, 가족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립암센터·한국유방암학회·대한암협회·유방암 환우회 등과 함께 손잡고 유방암 인식 확산과 예방, 실질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홈플러스 제공

"이제는 하이타오족이다"

롯데닷컴, 中 직구족 75% 유아동용품 매출비중 1위

"유커(遊客) 다음은 하이타오(海淘)다."

유커에 이어 국내 내수에 기여할 소비층으로 중국의 해외 직구족인 하이타오족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의하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48%에 불과하지만 하이타오의 연간 인터넷 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767억 위안(약 13조3044억원)에 달한다.

하이타오족의 인터넷상거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2배씩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대표 김형준)이 운영하는 역직구 쇼핑몰 글로벌 롯데닷컴의 경우 중국 직구족 비중은 지난해 2월 오픈 초기 30%에 불과했지만 이달 현재는 75%까지 차지하고 있다.

중국 직구족의 증가는 쇼핑몰 내 선호 품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글로벌 롯데닷컴이 서비스 개시 초반인 지난해 1, 2분기에는 패션잡화·화장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3분기부터 중국 직구족이 늘면서 유아동용품이 매출비중 1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기저귀·물티슈·세제·간식 등이다.

회사측은 한류스타·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국내 화장품들이 인기상품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으로는 중국 엄마들을 사로잡은 유아동 품목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 직구족이 자주 검색하는 인기 키워드는 시계·신발 등의 패션 잡화나 화장품·다이어트 식품·홍삼 등의 순이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트렌드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영미권 국가 중 미국의 경우 1분기 매출 비중은 여성의류가 23.1%, 가방은 20.4%, 호주는 여성 트렌드의류 상품군이 31% 차지했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글로벌 롯데닷컴은 중국·미국·일본 등 28개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지만 중국인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은 유아동 용품과 케이(K)-뷰티라고 불리는 화장품과 바디용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닷컴은 지난해 2월 글로벌 롯데닷컴을 오픈하고 종합쇼핑몰 중 최초로 전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현재까지 월 평균 20%의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글로벌 롯데닷컴에서 중국 직구족의 선호 제품들. /롯데닷컴 제공

中 김치 장악… 5년간 무역적자 900억

중국산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김치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8409만 달러(약 91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총 21만2938t, 수입액은 1억439만6000 달러였다. 반면 수출량은 2만4742t으로 수출액도 수입액보다 20% 적은 8403만3000 달러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김치의 99%는 중국산이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김치는 거의 없다. 중국의 수입 김치에 적용하는 까다로운 위생기준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김치가 식탁을 장악하는 사이 김치 수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2010년 2만9672t(9836만 달러), 지난해 2만4742t(8403만3000 달러) 등으로 수출량과 수출액이 각각 17%, 15% 감소했다.

현대百 오늘 정상영업… '온리 먼데이'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휴점일인 18일 전국 13개 점포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온리 먼데이' 할인 행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센터점은 이날부터 '유명 수입의류·잡화 브랜드 S/S 특별전'을 열고,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질샌더·멀버리·라꼴렉시옹·소니아리키엘·놀 등 총 15개다.

디자이너 브랜드 김영주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시즌 재킷을 30만원에 균일가로 판매한다.

압구정본점 식품관에서는 한우(1등급 채끝로스 스테이크/우둔장조림,사태국거리 각 100g)·양식전복(대/100g) 등을 당일 판매가의 20% 할인 판매한다. 친환경 수박(1통)·친환경 토마토(2kg)·감자(2kg) 등은 당일 판매가의 3000원 할인 판매한다. 또 인기 와인은 최대 70% 저렴하다.

목동점에서는 '온리 먼데이 영캐주얼&아웃도어' 특가 아이템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동업계가 18일을 정기 휴무일로 잡았지만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위해 다음날을 정기 휴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랜드, 홈리빙 매장 '모던하우스' 中 진출

연내 10개 매장 오픈 예정 매출 300억원 달성 목표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의 홈리빙 전문 매장 모던하우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랜드는 30일 중국 상해의 신흥 주거지역인 신장종성에 위치한 스카이몰 쇼핑몰에 모던하우스 1호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96년 당산에 1호점을 오픈한 모던하우스는 현재 국내에 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홈리빙 전문매장이다.

모던하우스 중국 1호점은

2100m2(630평) 규모로, 2~3주마다 시즌별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빙 소품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판매할 예정이다.

또 모던하우스 내에 지난해 9월 론칭한 패스트리빙 라이프스타일숍 버터도 함께 오픈해 10~20대 고객도 놓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는 연내 중국에 모던하우스 1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300억원이다.

중국 내 리빙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 이케아와 일본의 홈 인테리어 업체 니토리 등이 진출하면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향하는 추세다.

이랜드 관계자는 "그간 축적해온 중국 사업 노하우를 통해 모던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중국 최고의 홈리빙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예비 부모 위한 '매일유업 베이비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경기도 일산의 엠블호텔에서 임신 부부를 초청해 30 ~ 31일 1박2일간 '매일유업 베이비문'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매일유업 베이비문 행사는 예비 엄마와 아빠를 대상으로 임신을 축하하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예비부모 총 20쌍을 초청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수원여대 변영신 교수의 '성공육아를 위한 부모지수 P

Q' 특강과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성상희 교수의 국악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석을 원하는 예비부모들은 매일유업 육아포털인 매일아이닷컴(www.maeili.com)에서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닭고기 가격 하락에 매출 '껑충'

올 여름 '닭고기'가 인기 축산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가운데 유일하게 닭고기 가격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에 따르면 한우와 돼지고기의 도매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르고 있는 반면 닭고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한우(지육/1kg)의 평균 도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돼지고기(탕박/1kg)는 17.5% 각각 상승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겨울 발생한 구제역과 설사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이동 제한 등으로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매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조류독감(AI) 발생 이후 사육이 늘어난데다 올해 육계 생산성이 좋아 공급량이 증가하며 산지 가격이 지난해부터 매달 낮아졌다. 이달 들어 닭고기(도계/1kg) 소매가는 5372원으로 13.9%나 떨어졌다.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닭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한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감소하고, 돼지고기는 5.1% 소폭 늘어난 반면 닭고기 매출은 무려 29.9% 증가했다.

뭘 해도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내 피부는 #방황 중

NEW 오리지널 스킨™ 세럼

푹 자고 일어나면 늘 환하게 되돌아오던 피부, 점점 푸석해지는 것 같다면
피부는 지금 #방황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에이징은 무겁고, 기초 케어만으로는 부족한 #방황 중인 피부에
오리지널 스킨™ 세럼으로 예전의 환했던 피부를 되찾아보세요.
체스트넛 추출물이 피부결을 매끈하게, 윌로우 허브가 피부톤을 환하게,
페르시안 실크 나무 성분이 피부 스트레스를 잠잠하게 합니다.

이제 피부 만큼은 #방황하지 않도록, 오리진스 오리지널 스킨™ 세럼으로 생기로 반짝이는 피부를 되찾으세요.

오리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소식을 만나보세요!

Facebook.com/OriginsKR
Instagram.com/Originskorea

www.origins.co.kr T. 02-3440-2783

'저거 사고 싶어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제6회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던 신발과 장난감, 책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맛↑' 식품업계 리뉴얼 열풍

새 원료로 소비자 어필

식품업계의 변신 바람이 거세다. 단순히 패키지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웰빙 트렌드에 맞게 기존 원료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원료를 더해 건강과 맛을 업그레이드시킨 제품들로 주목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건강한 단맛의 대표 상품인 '백설 건강한 올리고당'을 식이섬유 함량과 건강을 강조하는 패키지로 리뉴얼을 단행했다. 백설 건강한 올리고당은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33%, 100g 당 33g 함유됐다. 곡물로 만든 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보다 식이섬유가 5배 더 많으면서 칼로리는 17%(설탕 대비 40%, 동량 기준) 더 낮다. 회사 측은 올해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은 또 '행복한콩 국산콩 두부'를 비타민 D가 함유된 '행복한콩 국산콩 비타민 D 두부'로 리뉴얼해 건강하고 맛있는 두부로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 두부 한 모에는 성인 1일 비타민D 권장섭취량 5㎍이 들어있어 칼슘과 비타민D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이 일정량의 칼슘과 비타민D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야쿠르트도 올 초 맛과 건강을 업그레이드한 리뉴얼 '하루우유'를 선보였다. 오메가3를 약 23~24mg 추가해 기존 17mg의 두 배 이상으로 증대시킨 것이다. 오메가3는 매일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 피로회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엔 '루야채 키즈'도 리뉴얼 출시했다. 청경채·쑥갓·꽃상추·청겨자·당근 등을 추가, 함유 야채를 기존 6종에서 14종으로 늘렸다. 또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캐릭터 뽀로로·타요로 새롭게 꾸몄다. 한국야쿠르트는 하루야채 키즈 리뉴얼에 맞춰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도 '꼬마버스 타요'로 단장했다.

대상 청정원은 지난 2009년 고추장의 주원료를 밀가루에서 쌀로 바꾸며 '쌀고추장' 시대를 선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쌀을 다시 현미로 교체하며 '현미고추장'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제품 라인업 보강이 아니라 주력 제품군을 '현미 고추장'으로 내세우며 전면적인 리뉴얼을 단행했다.

청정원은 고추장 외에도 홍초를 10년 만에 리뉴얼 해 '홍초 바이탈플러스'로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의 곡물 발효에서 사과·레몬·당근의 3가지 과채를 원료로 한 자연발효 3색 식초로 변경했다. '홍초 바이탈플러스'는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B 복합물도 함유됐다.

아이배냇은 오직 산양유성분 100%에 기능성 성분을 추가한 '순산양유아식'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아이들이 소화 못 시키는 과도한 성분은 줄이고, 장 건강과 소화흡수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3종을 보강했다. 젖소 우유 성분을 일체 섞지 않고 유당 성분까지 모두 산양유 원유에서 추출하는 등 유성분 전체를 오직 산양유성분 100%만으로 설계돼 원유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CJ도너스캠프' 10돌… 209억원 기부

31만 회원 매칭기부… 4300개 공부방·지역아동센터 후원

CJ그룹(회장 이재현)의 사회공헌사업인 'CJ도너스캠프'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CJ도너스캠프는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환경 개선사업을 펴는 온라인 기부프로그램이다. "교육불평등이 대물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이재현 회장의 철학에 따라 2005년 7월 시작됐다.

CJ도너스캠프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기부플랫폼이다. 이날까지 31만여 명 회원의 기부금에 CJ나눔재단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더해 총 209억원을 기부했다. 전국 4300개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해 왔다.

또 문화·직업체험, 진로탐색 교육, 대학생 인성멘토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J그룹은 CJ도너스캠프 10주년을 맞아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동안 지원해 온 공부방 학생들과 가족·선생님·기부자 등 800여명을 초청해 'CJ도너스캠프 10주년 성장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CJ도너스캠프는 10년간의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해 온 청소년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발표하고 사연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청소년 3명, 공부방 선생님 1명에게 꿈장학금과 선물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우수 기부자 4명과 최우수 공부방 3곳을 선정해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우수 기부자로는 CJ도너스캠프 출범과 함께 10년째 기부를 해 오고 있는 최장기 기부자 송은정씨, 온 가족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78세의 최고령 기부자 김송원씨, 어린이날 선물로 나눔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부모님과 함께 3살 때부터 기부를 해 온 올해 6살의 최연소 기부자 박민지 어린이, 첫 월급 전액을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기부한 직장인 조형래씨 등이 선정됐다.

제일모직 '그린에버'로 잔디시장 공략

제일모직이 자체개발한 신품종 잔디 '그린에버'로 프리미엄 잔디시장을 공략한다.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대표 김봉영)은 전남 장성군과 그린에버 위탁재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그린에버를 3년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레저·조경과 관련된 고부가 잔디 시장을 선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린에버는 제일모직 식물환경연구소가 국산 잔디와 양잔디의 장점만 결합해 2007년 개발했다. 잔디가 촘촘해 잡초가 덜 자라고 물과 농약 사용량이 매우 적어 친환경적이며 가뭄·병충해에도 강한 토종 슈퍼품종이다.

제일모직은 과거 자연농원 시절부터 쌓아온 체계적 잔디 재배·품종보호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게 된다. 장성 지역은 1982년 처음으로 잔디 재배를 시작한 이래 30여년간 쌓아 온 재배·수확 노하우를 보유했고 잔디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가공·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강강술래, 늘봄공원 로컬푸드 판매장 개장

숯불구이한식전문점 강강술래를 운영하고 있는 전한(대표 최종만)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외식테마파크 늘봄농원점에 최근 로컬푸드 판매장 '늘봄마켓'을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늘봄마켓'은 △과일 △채소·쌀 △잡곡·버섯 △건야채·소스류·냉장 △냉동·축산물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친환경 인증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친 고양시에서 생산된 500여 종류의 우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이번 늘봄마켓 오픈을 통해 농가들은 매월 약 9만명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한 측도 지역 내 신선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

/강강술래 제공

고양시 500여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판매

지 제고 등 윈윈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만 전한 대표는 "산지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양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통해 고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최종만 전한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심상정 국회의원·김태원 국회의원·유은혜 국회의원·이종경 덕양구청장·이창해 한국농촌지도자 고양시연합회장 등 내빈들과 지역 농부 200명 등이 참석했다.

한국장학재단, 오늘 제4회 국제학자금 포럼

9개국 학자금 전문가 한 자리에

국가별 지원 흐름 진단
국내 최적화 제도 논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5월 18일 10시 30분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C에서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가 주제다.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학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와 '국가별 대학생 지원제도의 특징과 현황'을 세션별 주제로 하여 한국·미국·일본·호주·독일·스웨덴·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국가별 학자금 지원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 국내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학자금지원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담당자와 포럼 발표자 간의 질의와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만성신부전증 건강보험 진료비 1조3600억

건보공단 지급자료 분석
연 9%씩↑ 요양병원 최고

'만성신부전증(N18)'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 3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인원 역시 5년 간 연평균 14%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19.1%)이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14.7%, 상급종합병원 12.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9.3%씩 늘어 2013년에는 1조359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종과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1.3%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약국이 20.5%,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12.9%) 순이었다.

2009년 진료인원은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남성은 2009년 5만3619명에서 2013년 9만2080명으로 연평균 14.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2.3%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0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6명, 여성이 23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5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 1520명, 60대 856명 순이었다. 남성 진료인원은 여성에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2.57배, 70대는 2배, 60대에는 1.86배 많았다.

65세 이상 진료인원은 65세 미만의 8.81배이고, 남성은 10.12배, 여성은 8.0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17.9%씩 늘었고, 그 뒤를 이어 70대에서 연평균 13.5%씩 증가했다. 증가율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만성 신부전증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신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이 다음으로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을 지닌 환자에서는 원인 질환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나친 염분 섭취를 피하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과 조영제 등의 검사 남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최치선기자 chisunti@

한국 음식·문화, 美 쿠킹채널서 방영

'AVEC ERIC 시즌 3'서 'DMZ편' 소개

세계적인 셰프가 진행하는 유명 음식 프로그램인 'AVEC ERIC 시즌 3'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한국의 DMZ편이 미국 쿠킹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세계 최고의 셰프 중 하나인 에릭 리퍼트(Eric Ripert)가 진행하는 AVEC ERIC 시즌 3에서 마지막 에피소드로 'DMZ편'이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미 동부시간)에 소개되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의 DMZ 일대에서 지난해 10월 관광공사의 초청으로 촬영되었다. 에릭 리퍼트가 통일촌 마을에서 두부 만드는 체험을 하고 인삼농장, 콩 농장을 방문해 재배·요리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와 정신을 자세히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 음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담아냈다.

AVEC ERIC 방송 프로그램은 에릭 리퍼트가 세계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에는 한국의 '사찰음식', '김치&고추장' 에피소드가 방송된 바 있다.

16일 방영된 AVEC ERIC 시즌3 DMZ 편에서 한국의 인삼을 소개하는 에릭 리퍼트.

안전보건공단 "청백리 정신 느껴요"

임원·간부직원 30여명 대상
장성서 '청렴문화 체험교육'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5일 전라남도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임원과 간부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체험 교육'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청백리인 '지지당 송흠'과 '아곡 박수량'의 생애를 관련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투명경영 의지를 다지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보건공단 윤양배 감사는 "이번 체험교육은 선현의 청백리 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단은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지당 송흠'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관직활동에 최소한의 말(馬)만 사용하는 등 검소함을 실천한 청렴 관리였다.

또 '아곡 박수량'은 30여년간의 재상까지 오르는 관직생활 동안 집 한칸도 마련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다. /복현명기자 hmbok@

관광공사 "무슬림 친화 배워요"

'무슬림 프랜들리' 세미나
내달 2일 전문가 초청 강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오는 6월 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무슬림 프랜들리 코리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무슬림 친화 목적지가 되는 길(How to become a Muslim-friendly travel destination)'의 주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무슬림 관광 전문가를 초청해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성공사례', '무슬림 관광시장의 이해와 세계동향', '터키 할랄 호텔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 등 총 3개의 강연과 강연자가 직접 진행하는 미니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청 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이슬람 투어리즘센터의 줄키플리 빈 사이드 센터장(Mr. Zulkifly Bin Dm Said), 싱가포르 할랄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 크레센트레이팅의 바하딘 모하메드 파잘 대표이사(Mr. Bahardeen Mohamed Fazal), 터키 할랄호텔 아데냐 호텔 & 리조트의 자퍼 타타로글루 총지배인(Mr. Zafer Tataroglu)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는 5월 21일까지 세미나홈페이지(www.muslimfriendlykorea.com)에 등록하면 된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복현명기자

aT, 농식품산업 창업교육생 모집

교육비 5만원 27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식품 창업과정'과 '전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농식품 유통분야 30년 교육 노하우와 전문성을 총결집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식품산업 분야 특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식품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교육신청은 27일 오후 4시까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 첫 화면의 교육공지 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agroedu@at.or.kr)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400-3564, 3524

첨단 안전장치… 카레이서도 신뢰하고 추천

시승기

뉴 푸조 308 1.6

탄탄한 주행성능·16.2km/ℓ 고연비 폭스바겐 골프 대항마로 손색없어

작다. 핸들이.

뉴 푸조 308 1.6 차량 안에 들어섰을 때 받은 첫인상이다. 신형 푸조 308 1.6 모델의 스티어링휠 규격은 320파이다. 웬만한 소형 승용차 핸들은 370파이, 작아도 350파이 수준이다. 320파이는 고가의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사이즈다. 그만큼 푸조는 새 308 1.6을 출시하면서 작정하고 드라이빙의 맛을 신경 썼다. 바퀴는 16인치 휠을 달았다.

주행 모드는 일반과 스포츠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모드로 주행 시 디젤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냈다.

새로운 6단 자동변속기는 듀얼 클러치와 비교해 기어 변속이 빠르고 내부 마찰을 줄여 부드러웠다. 그동안 푸조는 2.0 미만의 모델에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인 MCP를 탑재했었다.

이번 308 1.6 모델에는 글로벌 변속기 전문기업 아이신이 제조한 6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했다. 차량에 장착된 BlueHDi 엔진은 최대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힘을 낸다.

디젤 엔진의 특성상 최대 토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 회전 구간(1750rpm)에서 발생한다.

정차 시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출발 시 자동으로 재시동이 걸리는 스톱 앤 스타트 시스템은 부드럽게 작동했다. 시내주행 시 약 15%의 연비향상 효과가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일반 모드로 달리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꾹 밟아도 힘있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었다.

또 음악이나 에어컨 등 편의장치를 조작하려면 네비게이션 터치스크린을 통해야 돼 직관성이 떨어졌다. 기어봉 뒤에 있는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누르자 "그르릉~" 하는 엔진 소리가 화답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반 대비 좀 더 높은 rpm에서 변속한다. 반응성이 올라가 운전하는 재미를 더해줬다.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리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계기판 색상은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엔진의 순간 출력, 토크, 부스트가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이지로 표시됐다. 크롬으로 마감 처리한 패들 시프트는 기본으로 탑재됐다. 개별 시승 후에는 전문 드라이버의 성능 시연이 이어졌다.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서 핸들 우측 레버의 G센서 버튼을 누르면 중력과 관성을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앞뒤와 좌우의 G센서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지 수치로 표기해준다.

고속에서 차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자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가 작동해 "끼기긱" 소리를 내며 미끄러짐 없이 지면을 잡아줬다. 급제동을 하자 차가 꽂힐 정도로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차체를 세웠다.

레이싱팀 슬라이더스의 주원규 감독은 "푸조가 이 차를 만들면서 운전의 맛을 잡기 위해 많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좋은 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만큼 움직여 주고, 미끄러짐 없이 멈춰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는 드라이버가 믿고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탄한 주행성능과 안전장치로 좀처럼 단점을 찾기 힘든 뉴 푸조 308 1.6의 복합연비는 16.2km/ℓ(고속 17.7km/ℓ, 도심 15.2) 수준이다.

푸조는 공인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더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차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주 감독은 20km/ℓ 초반대의 연비가 나왔다고 전했다.

신형 푸조 308 1.6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악티브 2950만원, 알뤼르 3190만원이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뉴 푸조 308 6.1

구글 자율주행차 준비 끝 이르면 6월부터 도로주행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구글이 이르면 6월 일반 도로에서 자체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7일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구글의 자율주행차량이 올해 여름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달릴 예정이다. 여전히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구글은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개조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일반 도로에서 시험한 적이 있다. 크리스 엄슨 구글 자율주행차 책임자는 "6년 간 시험 주행 과정에서 총 11차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지만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모두 피해자였으며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 역시 자율주행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은 적어도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달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테슬라 모터스는 특정 고속도로에서 자동 조종되는 기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너럴 모터스(GM) 역시 운전대와 페달에 손, 발을 대지 않아도 주행되는 '슈퍼크루즈'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대까지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 주행 중 판단능력이다. 자율주행차가 다른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지 미지수다.

지역과 도로의 특색에 따라 운전법도 달라져야 한다. 도심에서 운전을 할 경우 주행 방법은 더욱 까다롭다. 구글의 이번 여름 시험 운행은 바로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 운행 차량은 시속 40km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법적 규제로 인해 운전대와 페달도 설치됐다. /양소리기자 10sound@

벤츠, 독일 3대 명차 중 SUV 판매량 '꼴찌'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올해 1~4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량이 독일차 브랜드 중 가장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캠핑 유행과 저유가 등에 힘입어 SUV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으나 벤츠 SUV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17일한국수입자동차산업협회(KAIDA)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GLA ,GLK, M클래스, G클래스 등 벤츠 SUV모델은 총 1172대가 판매됐다. 반면 BMW는 X4, X5, X6 등 SUV모델이 1616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의 경우 Q3, Q5, Q7 등의 판매량은 1586대였다. 벤츠가 독일 3대 자동차 브랜드 중 판매량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벤츠 GLK모델은 지난 1월 14대를 시작으로 2월 56대, 3월 144대, 4월 186대 등 총 396대가 판매돼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벤츠 ML 350 BlueTEC 4매틱은 342대가 등록돼 M클래스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64대로 전달(82대) 대비 감소했다. ML 250 BlueTEC 4매틱은 지난달 26대 판매됐다. 이밖에도 GLA 335대, G350 BlueTEC 45대, G63 AMG 20대 등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BMW X5 3.0d 모델은 503대가 판매돼 X5 4.0d(118대), X5 M50d(14대)보다 훨씬 앞섰다. X6 모델은 3.0d 421대, 4.0d 74대로 총 495대가 판매됐다. X4모델은 2.0d 432대, 3.0d 54대로 총 486대가 판매됐다.

아우디 Q5모델인 35 TDI(448대), 45 TDI(380대), SQ5 3.0 TDI(162대)는 총 99대가 판매돼 아우디 SUV 판매량을 이끌었다. Q3과 Q7은 각각 382대, 214대가 팔렸다. /정용기기자 yonggi@

현대車, 아슬란 최하위 트림 95만원 인하

현대자동차는 대형 세단 아슬란 최하위 트림 가격을 95만원 인하하고 옵션을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측은 아슬란 3.0모델의 '모던' 트림을 베이직과 스페셜로 나누고 옵션의 종류를 다양화해 고객 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베이직 트림'은 앞좌석 통풍시트, 퍼들 램프 등 기존 사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존 '모던' 트림 가격(3990만원)대비 95만원 인하한 3895만원으로 책정했다.

'스페셜 트림'은 퀼팅 디자인이 적용된 프라임 나파 가죽시트(시트 가죽에 마름모 형태의 정교한 스티칭 처리를 한 것)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해 75만원이 인상된 4065만원에 책정됐다.

/정용기기자

metro entertainment

"다양한 장르 선택? 타고난 성격이죠"

영화 '간신' 주지훈

지난해 '좋은 친구들'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주지훈(33)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로 돌아왔다. 영화 데뷔작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를 함께 했던 민규동 감독과 8년 만에 재회한 '간신'이다. 조선 연산군 11년, 전국에서 1만 미녀를 모아 왕에게 바쳤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주지훈은 1만 미녀를 왕에게 바친 채홍사 임숭재 역을 맡았다.

제작사 수필름과 함께 한 네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주지훈은 대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감독에 대한 믿음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간신'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내 아내의 모든 것' 등 민규동 감독의 전작과는 달리 다소 폭력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출연을 결심한 주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손에 쥔 순간 이미 주지훈의 마음은 임숭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임숭재는 '간신'의 등장인물 모두와 엮이는 화자이자 갈등의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캐릭터다. 왕에게는 충신이지만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간신인 미묘한 캐릭터다. 때로는 점잖다가도 때로는 거침없이 욕망을 드러내는 입체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영화는 각각의 인물이 뿜어내는 욕망과 갈등으로 긴박한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임숭재와 단희 사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좀 더 감성적인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간다.

임숭재를 연기하면서 주지훈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명분을 갖고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임숭재가 단희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천민들을 바라보며 임숭재가 느끼던 죄의식에 단희가 작은 불씨를 지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는 "예산 문제도 있었고 민규동 감독님과도 친하다 보니 의견을 내도 '안된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모델 출신인 주지훈은 따로 연기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로 데뷔했다.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았던 그는 그동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역할로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아무 것도 모르고 연기를 시작했기에 힘든 순간도 많았다. 리딩을 앞두고는 긴장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현장에서도 긴장과 스트레스로 늘 위경련에 시달렸다.

하지만 주지훈은 정작 촬영에 들어가거나 무대에 서는 순간은 떨리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촬영된 장면은 지울 수 없잖아요. 절벽 끝에 선 기분이죠. 그 순간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정신이 '틱' 돌아요."

주지훈은 자신이 타고난 대로 연기한다. 그리고 그런 연기가 지닌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쉽게

민규동 감독과 8년 만의 재회
역대급 간신 '임숭재' 역 열연
욕망·갈등·순애보 입체적 연기
"액션·멜로 등 안해본 장르 기대"

잘 바뀌는 편이에요. 연기에서는 캐릭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되죠. 물론 잘못하면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요. 맛있는 자장면을 한 번 먹고 나면 계속 그것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맛있는 자장면에 한 번 만족하면 다른 맛있는 걸 찾아요. 제 필모그래피도 일부러 다양성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에요. 어쩌면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죠. 아직 액션이나 순수한 멜로처럼 안 해본 장르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재미있게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새 앨범 타이틀 '큐피드'

오는 26일 컴백을 앞둔 **카라**가 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을 공개했다. 소속사 DSP 미디어는 지난 15일 정오 멤버 4명의 모습이 담긴 콘셉트 포토와 함께 미니 7집 '인 러브(IN LOVE)'의 타이틀곡 제목이 '큐피드(CUPID)'라는 사실을 알렸다. '큐피드'는 최현준, 정호현으로 구성된 프로듀싱팀 이원(e.one)이 제작한 곡이다.

일본서 솔로 데뷔

걸그룹 카라 출신 **니콜**이 일본에서 솔로로 데뷔한다.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니콜이 다음달 24일 신곡 '썸씽 스페셜(Something Special)'로 일본에서 솔로로 데뷔한다고 밝혔다. 니콜은 오는 30일 일본에서 첫 단독 팬미팅 '니콜스 홈커밍'을 개최하고 신곡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中 영화 출정식 참석

배우 **이정재**가 지난 15일 열린 제6회 베이징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열린 영화 '역전의 날'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정재의 첫 중국영화 출연작인 '역전의 날'은 중국 리준 감독의 액션 영화다. 중국 최대 영화사인 차이나필름과 하이룬, 국내 영화사 두타연 3개 회사의 합작 작품이다. 한편 이정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암살'로 관객과 만난다.

뜻 깊은 필리핀 봉사활동

배우 **이제훈**이 MBC의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LOVE 챌린지'에 참여해 필리핀 현지에서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왔다. 이제훈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하이옌, 하구핏 등 태풍 피해로 아직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주민들을 만나 일손을 돕는 등 도움을 보탰다.

한·중 자본 유입속 국내 드라마 '풍전등화'

저작권 분배·실패리스크 공유 등 방송사·외주사 간 협업 절실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선 지상파와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2항 '특수관계자 제작 비율' 삭제를 놓고 충돌했다. 특수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외주제작사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에서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최대 21%까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는 특수관계자의 프로그램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지상파방송 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지만 독립제작사협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은 한미·한중 FTA로 국내 방송시장이 전면 개방된 첫 해다. 특히 중국의 거대 자본이 제작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한류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송 콘텐츠 생산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상생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사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BS2 금토극 '프로듀사'(왼쪽)와 MBC 월화극 '화정'.

◆ 저작권까지 쥐고 있는 지상파

다매체 시대에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콘텐츠를 가진 자가 우위에 서야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는 여전히 을이다.

외주 제작사 A씨는 방송사가 막강한 권력을 지닐 수 있는 요인으로 '편성권'과 '저작권'을 이야기한다. 방송사가 고유 권한인 편성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전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생이 원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작사는 방송사가 만들어 놓은 수익구조를 고려해 제작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2차 저작물 등 추가 수입 역시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는 방송사의 것이죠."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tvN 드라마 '미생'은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케이블 채널에 편성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브라인과 출생의 비밀 등 극단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장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상파의 답습을 비난했다. 방송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야할 지상파가 오히려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한류를 이끈 대부분의 작품이 외주제작사에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지상파는 권리를 쥐고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 스타 작가 보유한 제작사

방송사가 외주 제작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당 평균 제작비가 올라 방송국 예산만으로는 제작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외주사를 통한 협찬, 간접광고, 기타 사업수익으로 예산을 조달해야만 손익 분기점을 겨우 맞추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제작사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도 고전하고 있다. 방송사 PD B씨는 "방송사가 갑인 시대가 지났다. 지상파 플랫폼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좋은 드라마의 출발은 좋은 대본에서 시작한다고 봐요. 승률이 높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가와 계약하고 있는 외주사가 방송국과의 관계에서 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제작사 중에는 자신들의 수익과 이해 관계만을 고집하기도 해요. 권리 배분 과정에서 갑질을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 상생 방향…위험 부담 공유

이대로 가다간 국내 방송 시장은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자본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이들 거대 자본과 맞서려면 국내 제작사와 방송사가 협업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 다만 양측 모두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장차는 여전해 보인다.

한류 열풍의 지속 여부는 콘텐츠에 달려 있다. 결국 콘텐츠를 가진 자쪽이 주도권을 잡는 업계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갑'인 시대는 끝났다. 방송사는 저작권의 일부분을 외주사에게 주고, 외주사는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리스크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한다. 또 방송사는 점차 드라마나 예능의 자체 제작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국내서 첫 국제 하프 콩쿠르 열려

24~26일 예술의전당서

2015 대한민국 국제 하프 콩쿠르가 오는 24~2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하프 콩쿠르에는 10개국(한국·미국·영국·오스트리아·중국·러시아·홍콩·대만·싱가포르·세르비아), 참가자 45명이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 하프 콩쿠르다.

주니어 디비전·유스 디비전(24일·예술의전당 아카데미홀), 영 프로페셔널 디비전(25일·예술의전당 컨퍼런스홀) 3개 부문에서 경연한다.

콩쿠르 시작 전날인 23일에는 체코의 야나 부스코바, 프랑스 국립 방송교향악단 수석 하피스트 니콜라 틸리에, 미국의 마리아 루이자 레이안 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플루티스트 이소영이 협연자로 함께 하는 갈라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올해는 하프계 거장 수잔 맥도날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린다 우드 롤로, 밀다 아가자리안이 내한해 심사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씨엘, 다저스-텍사스전 시구

미국 데뷔를 앞둔 그룹 투애니원(2NE1)의 씨엘(사진)이 내달 18일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에서 시구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씨엘의 시구는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주최로 열리는 '한국 관광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17일 밝혔다.

빅뱅도 경기장 전광판에 게시될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통해 한국을 소개한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씨엘은 프로듀서 스쿠터 브라운과 손잡고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비정함 속 진심 향한 허망한 손길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

투박하지만 강렬한… 참혹하지만 큰 여운

■무뢰한

'무뢰한'(감독 오승욱)은 한 남자의 뒷모습으로 시작한다. 차에서 내려 허름한 주차장을 걸어 나가는 이는 형사 정재곤(김남길)이다.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아가는 정재곤의 뒷모습은 곧이어 살인범 박중길(박성웅)과 그 애인인 김혜경(전도연)의 섹스 신으로 교차된다. 절정의 순간 박중길은 김혜경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지만 김혜경은 그런 박중길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는다. 한때 잘 나가던 룸살롱 마담이었던 김혜경에게 박중길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절망과도 같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는 진심과 믿음만이 중요하다. 설령 그것이 허망한 결말을 안겨줄 지라도 말이다.

'무뢰한'은 비정한 세상에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진심, 혹은 진실 같은 단어들은 영화가 그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면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드보일드 그 자체다. 범죄와 마주하며 남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배신이라는 상처만이 남을 뿐이다. 정재곤의 몸에 새겨진 상처, 그리고 김혜경의 어두운 얼굴이 그렇다.

문제는 이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상처가 공명하는 순간, 두 사람은 은연 중에 서로에게 손길을 내민다. 비정한 현실을 잠시나마 견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영화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인물들을 묵묵히 바라본다. 이들이 지닌 내면의 심리를 관객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정적인 분위기의 영화는 성냥만 갖다 대면 불붙을 것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정서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액션은 날 것 같은 생생함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정재곤과 박중길이 처음으로 펼치는 숨 막히는 액션 신이 그렇다.

정재곤의 뒷모습으로 시작한 영화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로 막을 내린다. 사랑마저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 비정한 세상의 결말은 그 자체로 참혹하다. 김남길의 마지막 표정, 그리고 전도연의 마지막 눈물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 여운을 남긴다. '무뢰한'은 투박하지만 강렬하다.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제대로 된 느와르가 찾아왔다. 청소년 관람불가. 5월 27일 개봉.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국내여행의 First Class!
하나투어가 선보이는
한국여행의 새로운 기준
내나라 여행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내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하나투어 내나라여행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
KOREA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한국여행업협회 2014.7~2015.12
01 100% 출발보장
1명부터 출발보장(일부상품 제외)
02 특급호텔 숙박
지역을 대표하는 특급호텔 사용
03 지역별 맛기행
정성이 가득담긴 지역별미식단 제공
04 전용버스 이용
내나라여행 전용버스 이용
05 전담가이드 배정
전일정 전담가이드의 세심한 진행
06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노옵션, 노쇼핑
오직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만을 추구
서울출발
속초
평창
원주
안동
전주
대구
경주
부안
울산
담양
진주
부산
목포
보성
남해
한국일주 7일
1,28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5월 25,29일/6월 5,12,19,26일
일정 서울–전주–부안(1)–담양–목포(1)–보성–남해(1)–진주–부산(1)–경주–대구(1)–안동–평창(1)–속초–서울
서부권일주 4일
69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5월 25,29일/6월 5,12,19,26일
일정 서울–전주–부안(1)–담양–목포(1)–보성–남해(1)–진주–서울
특전 남해 힐튼 Golf&spa 리조트 이용예정
동부권일주 4일
69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6월 1,8,15,22,29/7월 6,13~30/8월 3,6,10,17
일정 서울–진주–부산(1)–경주–대구(1)–안동–평창(1)–속초–서울
특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인터컨티넨탈) 이용예정
남해안일주 4일
690,000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6월 8,15,22,29일/7월 6,13일
일정 서울–순천–여수(1)–남해(1)–통영–거제–부산(1)–양산–서울
특전 여수 히든베이 호텔 이용예정
양산
순천
통영
여수
거제
남도일주 3일
480,000부터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6월 5,12,26일/7월 3,10,17,24,31일
일정 서울–영광–목포(1)–해남–보성–광주(1)–담양–서울
특전 목포 현대호텔,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이용예정
영광
광주
해남
다도해일주 3일
480,000부터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6월 2,9,23,30/7월 7,14,21,28/8월 4,11,18,25
일정 서울–목포(1)–해남–보길도–목포(1)–서울
한려수도일주 3일
490,000부터
(⊕포함)/선택경비:없음
출발 6월 12,19,26일/7월 3,10,17,24,31일
일정 서울–거제(1)–통영–거제(1)–하동–서울

▶ TV 한 주 몰아보기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N '불법도박' 이수근 방송 활동 재개?

방송인 이수근이 16일 tvN 'SNL코리아' 시즌6 게스트로 출연했다.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2년 만의 방송 복귀다. 이수근은 이날 '궁금한 이야기 와이(WHY)–늑대소년, 5년 후' 콩트에 등장했다. 코너는 영화 '늑대소년'을 패러디한 것이다. 김병만은 늑대소년, 배우 이세영은 순이 역을 맡았다. 이수근은 새로운 늑대소년으로는 분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먹는 모습으로 코믹 연기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건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수근이 'SNL코리아'를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KBS2 금토극 '프로듀사' 김수현(왼쪽)·KBS2 금요극 '오렌지마말레이드' 여진구.

KBS 김수현·여진구 금토 밤 책임져

배우 김수현·여진구가 15일 KBS 밤을 책임졌다. 김수현과 여진구는 SBS 드라마 '자이언트'(2010)에서 형제,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2012)에선 성인 배우와 아역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올해 김수현은 KBS2 금토극 '프로듀사', 여진구는 KBS2 금요극 '오렌지 마말레이드'로 시청자와 만난다. 방송 전부터 '해를 품은 달' 속 두 이훤의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5일 김수현은 '프로듀사'에서 어리버리한 신입PD 백승찬에 완벽 빙의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렌지 마말레이드' 여진구는 미성년자지만 감성 충만한 멜로 연기로 누나들을 설레게 했다. 시청률은 김수현의 완승이었다. '프로듀사' 첫 회는 시청률 10.5%(TNMS·전국 기준), 2회는 11.2%를 기록하며 인기를 예고했다. 반면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4.8%(1회)·3.7%(2회)로 '프로듀사' 후광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TV 하이라이트

안현수·우나리 부부 이야기

◆ MBC '휴먼다큐 사랑' 오후 11시15분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된다. 지난주 안현수가 러시아 선수 빅토르 안으로 쇼트트랙 경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비화를 다뤘다. 이번엔 시련을 이겨내는 안현수·우나리 부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세상에 알릴 수 없어 비밀 혼인 신고를 감행하며 오직 사랑 하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부부의 이야기, 지난 4월 휴가를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두 사람의 여행기를 볼 수 있다. /전효진기자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가수 케이윌·정준영의 두 번째 냉장고 이야기가 방송된다. 특히 정준영은 주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냉장고를 공개하고 직접 칵테일을 만들 예정이다. 또 와인 초보 정준영을 돋보이게 할 '있어 보이는 와인 요리' 대결도 펼쳐진다. 비주얼 요리의 대표주자 최현석과 요식업계 큰 손 홍석천의 대결, 정준영의 선택은?

◆ KBS1 '가요무대' 오후 10시

'사랑의 계절'을 주제로 한다. 가수현숙은 '사랑하고 싶어요', 장윤정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를 열창할 예정이다. 이용복과 KBS 어린이 합창단은 '어린 시절'을 부르며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장미화, 김수희, 김수찬, 박건, 유지나, 이호섭, 우연이, 김연숙, 김정수, 이혜리, 김용임, 조은새, 김희진, 최훈, 적우도 출연한다.

◆ SBS '힐링캠프 – 기쁘지 아니한가' 오후 11시15분

'타짜' '식객' 허영만과 '이끼' '미생' 윤태호가 출연한다. 히트 만화 제조기 두 작가의 리얼 스토리를 들어본다. 특히 제자 윤태호는 스승 허영만을 "정말 무서운 제2의 아버지"로 소개하며 그의 교육법을 소소하게 비판해 웃음을 자아낸다. 두 사람의 만화 이야기가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31회)	15 불굴의 차여사 (9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09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 곰디와 친구들(한국어)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3회)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스타강사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후아유 – 학교 2015 (7회)	00 화정 (11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25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23시	00 KBS 뉴스라인 3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주년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2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시즌2 (6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1회)		2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 해외야구 04:05 클리블랜드 vs 텍사스 05:10 콜로라도 vs LAD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5회)	2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6회) 40 샘킴의 함께쿠킹 (7회)	00 <극한직업> 제주도 자리돔잡이	20 라디오 스타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3회)	00 오늘 뭐 먹지? (62·63회)	00 곤충 밀리미터의 세계 1부 위대한 생존 전략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7회)	40 삼시세끼 정선편 (1회) (재)	10 2015 테이스티로드 (3회)	00 <맨 헌트> 탄나섬 나말족의 사냥법		
22시			10 오늘 뭐 먹지? (63회) 35 오늘 뭐 먹지? (29회)	00 라이프 해킹 (1·2회)	00 28주 후	
23시	00 비정상회담 (46회)	00 식샤를 합시다 2 (13회)	10 셰프의 야식 (6·5회)	00 항공사고 수사대:에어 크래쉬 (26회)		
24시	30 마녀사냥 스페셜 (92회)	20 코미디 빅리그 (121회) (재)	00 샘킴의 함께쿠킹 (9·8회) 3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00 <극한직업> 제주도 자리돔잡이	00 잉투기	

추신수·강정호 3안타 '펄펄' 날았다

추, 6호 홈런에 3루타
강, 시즌 2호 도루까지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레인저스·사진)가 시즌 6호 홈런과 3루타를 날리며 장타 행진을 시작했다.

추신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텍사스가 0-3으로 끌려가던 1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선발 대니 살라사르의 빠른 공을 걷어올려 외야 우중간을 꿰뚫으며 올 시즌 첫 3루타를 기록했다. 이어 딜라이노 드실즈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을 밟았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살라사르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우중간 관중석에 꽂히는 비거리 123m짜리 아치를 그렸다.

4회에는 우익수 정면으로 향하는 강한 직선타로 물러났고, 6회에는 무사 1, 2루 상황에서 1루수 앞 땅볼을 쳐 주자를 2,3루에 보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3루 쪽으로 기습 번트를 대고 1루를 밟아 내야안타를 쳤다.

이날 3안타를 몰아친 추신수의 타율은 0.233에서 0.248(121타수 30안타)까지 올라갔다. 올시즌 추신수의 멀티히트는 8번째, 3안타 경기는 세 번째다.

하지만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9회말 제이슨 킵니스에게 투런포를 내주며 8-10으로 역전패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 역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존 레스터를 상대로 안타 2개를 뽑아내는 등 올 시즌 두 번째로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강정호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유격수 겸 5번 타자로 나서 4타수 3안타 1도루로 펄펄 날았다. 전날 6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강정호는 이날 2회 첫 타석부터 레스터의 148㎞짜리 싱커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4회에는 레스터의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를 날린 뒤 코리 하트의 타석 때 2루를 훔치며 올 시즌 2호 도루를 기록했다. 1-4로 뒤진 8회에는 컵스의 두 번째 투수 브라이언 슐리터의 151㎞짜리 직구를 공략해 좌월 2루타를 날렸다. 3안타를 기록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9(67타수 20안타)로 3할대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1-4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구자철 5호골 '함박웃음'

손흥민·김진수 맞대결 무득점… 이청용 4년만에 선발

구자철(26·마인츠)이 독일 분데스리가 5호 골을 터뜨렸다.

구자철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33라운드 FC쾰른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2분에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달 12일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만 두 골을 넣어 리그 3, 4호 골을 연달아 기록한 이후 1개월 만의 골맛이다.

지난해 8월 기록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예선 골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골을 더하면 이번 시즌 통틀어 7호 골이다.

구자철은 일본인 동료 오카자키 신지의 헤딩 패스를 받아 왼발 슛으로 FC쾰른의 골문을 갈랐다. 마인츠는 이날 구자철의 결승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구자철은 후반 36분 교체됐고 팀 동료 수비수 박주호(28)는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경기 후 후스코어드닷컴은 구자철에게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7.8점의 평점을 줬다. 무실점 수비를 이끌어낸 박주호가 7.9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레버쿠젠의 손흥민(23)과 호펜하임의 김진수(23)의 맞대결은 레버쿠젠의 2-0 승리로 끝났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율리안 브란츠와 교체될 때까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김진수 역시 후반 31분에 벤치로 물러났다.

경기 초반 손흥민과 김진수가 모두 왼쪽에 포진해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지만 경기 도중 손흥민이 수시로 오른쪽을 넘나들며 김진수가 손흥민을 막는 모습도 종종 나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은 리버풀과의 원정경기에서 4년 만에 선발 출전해 59분간 뛰며 팀의 3-1 승리를 지원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스타 스티븐 제라드의 홈 고별전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늦깎이 골퍼' 문경준, 데뷔 10년만에 첫 우승

'늦깎이 골퍼' 문경준(33·휴셈·사진)이 제3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첫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경준은 17일 경기도 성남 남서울컨트리클럽(파72·694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4언더파 284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경쟁을 벌이던 제이슨 노리스(호주)는 이날 5타를 잃어 개러스 패디슨(뉴질랜드), 김도훈(26) 등과 공동 2위(2언더파)를 차지했다.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은 문경준은 2개 대회를 치른 현재 시즌 상금 랭킹 1위(2억1300만원)로 뛰어 올랐다.

문경준은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골프를 시작했다. 2006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이 된 뒤 2007년부터 정규투어에서 뛰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다.

2타 뒤진 2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간 문경준은 전반에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나섰다. 단독 선두였던 노리스는 전반에 2타를 잃고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다.

11번홀(파3)에서 1타를 잃어 노리스와 공동 선두를 허용한 문경준은 13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5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아 다시 1타차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어 14번홀(파5)에서는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하면서 우승에 성큼 다가섰다.

/김민준기자

이보미, JLPGA투어 호켄 레이디스 2연패

시즌 첫 우승… 상금 1위 수성

이보미(27·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호켄 노마도구치 레이디스에서 우승하며 시즌 첫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보미는 17일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컨트리클럽(파72·637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몰아쳤다.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적어낸 이보미는 이번 시즌 네차례 준우승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JLPGA 투어 통산 9번째 우승이다.

전반에만 4타를 줄인 이보미는 후반 10번홀과 13번홀에서 버디 2개를 추가했고 일찌감치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2위 오야마 시호(일본)를 4타차로 따돌린 완승이었다.

이보미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2160만엔(약 2억원)을 받아 시즌 상금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켰다.

/김민준기자

종합격투기 UFC, 11월 한국서 열린다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가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UFC는 17일(한국시간) 트위터 등을 통해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UFC 파이트나이트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FC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된 UFC는 수많은 군소 단체를 흡수하고 2000년대 일본의 프라이드까지 인수하며 종합격투기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다. 2010년 8월에는 아시아에 지부를 세우고 시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개최한 바 있다.

켄 베거 UFC아시아 부사장은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선수를 배출한 나라이며 이번 대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더 강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有缘千里来相会，无缘咫尺也难逢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다>

yǒuyuán qiānlǐ lái xiānghuì, wúyuán zhǐchǐ yě nán féng

배용준(43)씨와 박수진(30)씨가 14일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배용준 박수진 결혼 상상도 못했네", "배용준 박수진, 완전 뜬금포", "배용준 박수진, 이렇게 부조화인 커플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등 두사람의 결혼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용준씨의 소속사는 두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올해 2월부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올해 가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결혼하는 한류스타 배용준과 가수 출신 배우 박수진. /연합뉴스

또 배용준씨는 밝은 성격과 깊은 배려심을 가진 박수진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박수진씨는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 배용준씨에게 신뢰와 사랑을 느껴 연인관계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두사람은 골프와 와인을 좋아하는 등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아 대화가 잘 통하는 등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지만, 인연이 없으면 지척에 있더라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둘의 결혼 발표에 대해 모두가 놀랐고, 소속사는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배용준 박수진 커플을 보면 두 사람이 인연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결혼까지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 서로의 짝을 찾은 두사람, 축하합니다.

/이정경기자 jkljkl@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2	
4				1		8		
	5		3					
	9				3			6
	3		2		8		7	
2			1				8	
					1		5	
		5		4				8
	1		5			6		

4	2	9	5					
5	3				6			9
		1	3					
						6	1	
1		2		6		4		8
	4	3						
					8	2		
3			2				5	6
					4	1	9	7

스도쿠 정답

1	8	7	6	5	9	4	2	3
4	6	3	7	1	2	8	9	5
9	5	2	3	8	4	7	6	1
5	9	8	4	7	3	2	1	6
6	3	1	2	9	8	5	7	4
2	7	4	1	6	5	3	8	9
3	4	6	8	2	1	9	5	7
7	2	5	9	4	6	1	3	8
8	1	9	5	3	7	6	4	2

4	2	9	5	8	7	3	6	1
5	3	8	4	1	6	7	2	9
7	6	1	3	9	2	5	8	4
8	5	7	9	4	3	6	1	2
1	9	2	7	6	5	4	3	8
6	4	3	8	2	1	9	7	5
9	7	6	1	5	8	2	4	3
3	1	4	2	7	9	8	5	6
2	8	5	6	3	4	1	9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업 접고나니 무엇을 할 지 고민입니다
음력 6월까지는 기다린 뒤 계획 세우시길

달별사랑 여자 64년 10월 14일 양력

Q 64년생으로 시는 모릅니다. 그동안 언니랑 동업 식으로 해서 노래방을 했다가 언니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형부도 자기 일을 도우라고해서 노래방을 4월30일부로 접었습니다. 다행히 임자가 나타나 권리금도 받고 넘겼는데 막상 그만두었지만 남편사업이 고비라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동안 노래방으로 메꾸었는데 앞으로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사업에 쏟아 부을 수 도 없고 해서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사업이 좀 나아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지천명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음력 7월까지는 진일보하는 분발심이 느슨하니 6월까지는 기다려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합니다. 재물이 지살(地煞)에 해당되는데 지살은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격이라 많은 사람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고 주거지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어느 때는 쓸데없이 분주다사한 경향을 띠기도 하는데 연월(年月)이 충돌되어 안정감을 잃었으므로 지살은 부부 궁이 온전하지 않음을 시사 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지살은 남자를 밀어내며 불화를 야기하여 별거와 생사별을 야기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주에 여연살(女戀殺)이라는 기운이 있거나 운에서 오게 되면 사업상 배우자 몰래 다른 애인을 숨겨둘 여지가 있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살(殺)들은 운(運)이 길하게 펼쳐질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단독으로 다니기 보다는 비서나 아랫사람을 대동할 때가 많아 귀한 신분과 풍류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여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까닭에 여비서나 가정부를 두는 사주는 지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양에 지는 노을의 형상'으로 호화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자만하여 뽐내는 기질도 있으니 이런 점을 참고하여서 직업을 구하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귀하는 2013년 5월부터 18969, 19177, 19214, 19387, 19364 등 오늘까지 위와 같은 사주로 5번 정도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의뢰 하신듯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으나 변화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새로운 문제나 내용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18일 (음 4월 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49년생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을 사귀면 길합니다. **61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3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50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62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74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86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51년생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매사에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75년생** 사회는 냉정합니다. **87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6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7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88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4년생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6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78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9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6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6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정신을 맑게하세요. **80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57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81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93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8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70년생** 모든 것이 잘 풀려 즐거운 하루입니다. **82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4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59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7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83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95년생** 연인과 절교 사건이 있습니다.

‘론스타 소송’ 국민은 관심 꺼?

송병형의 다른 생각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5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유사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모를 중대한 소송이다. 막대한 국부유출의 가부가 달린 소송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국민은 국외자로 소외되고 있다.

소송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ICSID 홈페이지에는 개별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페이지가 따로 있지만 론스타 소송만은 텅 빈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만이 아니라 우리정부도 비공개를 원했다는 이야기다. ICSID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심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느냐, 아니면 완전 비공개로 하느냐’의 폭 넓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론스타와 우리정부 모두 극단적인 비공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정부 전언의 진위 여부조차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국익을 위해서 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되레 ‘이번 소송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론스타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은 이 같은 의심을 부채질한다. 지난 11일 출간된 ‘검은머리 외국인’(저자 이시백)에는 세간에 떠돌던 의혹들이 소설의 형태로 담겼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의 물주가 한국인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세간에는 론스타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5조원 가운데 1조7000억원가량이 한국인의 몫이었다는 말까지 나돈다. 심지어 우리정부의 경제관료와 노조도 의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도 론스타 소송이 공개돼야 할 이유는 더 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무능이 부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이 2003년 론스타에게 넘어갔을 때 정부는 골칫거리를 해결했다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졸속매각과 편법매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어진 재판은 론스타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빌미가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며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실제 론스타는 이후 더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도 정부만 믿고 기다리라고 국민에게 말한다.

/정치부장

‘악의 연대기’·‘간신’에서 한국사회 현실을 보다

기자 수첩
장 병 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졌던 달콤한 휴일이 끝나자 예전 같은 일상이 되찾아 왔다. 극장가에서는 그동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피해 몸을 움츠렸던 한국영화가 기지개를 펴고 관객 앞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여느 때보다 바쁜 날이 이어지고 있다. ‘악의 연대기’ ‘간신’ ‘무뢰한’ 등이 차례로 언론시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봉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무뢰한’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작품은 아쉬움이 컸다. ‘악의 연대기’는 전반적으로 매끈한 연출이 눈에 띄었지만 반전에 지나치게 얽매인 느낌이었다. 캐릭터의 대결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끝까지 간다’와 비교해 보면 ‘악의 연대기’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간신’은 민규동 감독이 그려내는 권력과 욕망의 지옥도가 흥미로웠지만 다소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은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각각 투자와 배급에 참여한 작품이다. 이들 두 작품은 상업적인 결과를 노린 기획영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아쉬움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다만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두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 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그리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를 취하고 있지만 두 영화 공히 지금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영화의 두 주인공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악의 연대기’에서 손현주가 연기한 주인공 최창식 반장은 후배들에게 신임받는 경찰서 강력반장이지만 알고 보면 성과를 위해서는 작은 비리 정도는 눈감으며 윗사람들에게도 적당히 꼬리를 내릴 줄 아는 처세술에 능한 인물이다. 공정한 수사를 신념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한 최창식 반장을 통해 영화는 사회 초년생 시절의 순수함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때를 타게 되는 현대인의 비애를 이야기한다.

‘간신’에서 주지훈이 연기한 임승재는 다른 신하 입장에서는 간신이지만 왕에게는 지극히 충신인 인물이다. 임승재는 왕의 욕망을 예리하게 포착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권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임승재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머리를 수그릴 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식 반장과 임승재를 과연 영화에서나 볼 인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고 씁쓸함이 마음 한 구석에 남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두 작품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각기 다른 장르와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담아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이를 영화적으로 더 잘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야말로 두 영화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다.

노르돔 캄보디아 왕자,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초청 방한

캄보디아왕국 노르돔 시리부드 왕자(사진 왼쪽 세번째) 내외가 17일 한글세계화운동본부(총재 심의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노르돔 왕자는 오는 23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한글세계화운동본부와 국회, 서울시청 등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한글보급사업과 양국간 민간교류사업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설창욱 서울본부장은 “노르돔 왕자 일행은 방한기간에 캄보디아 내 한글보급과 한국 특성화국제학교 설립, 한국의 선진화된 보안 씨큐리티 시스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등 의료기술 도입, 캄보디아 버스종합터미널 인프라 구축, 농·축산 선진화시스템 도입과 주택관리서비스 등의 협력방안을 국내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르돔 왕자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 여장을 푼 뒤 18일까지 ‘2015 한-아세안 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19일 국회에서 이인제 의원을 만나 캄보디아 노동자 한국입국 확대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심의두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총재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전북 완주군 화산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세계 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도 할 예정이다.

/강민규기자 unha@

Distortion of North Korean Army ‘Militia Revealed Behind Mask’.

Gwangju stated that they have found ‘The One’ in the picture from 5.18 which was distorted to be a North Korean soldier behind the mask who led the tyrants. Gwangju and the Historical Distortion Measure Committee said that they will file charges against those who denounced the two soldiers in the pictures wearing the mask as North Koreans. The police found out that the two people, who covered their faces with a towel, riding on the jeep, were Lim Sung Taek and Mr. Gu. It has been told that Lim was in the special strike forces during the 5·18. There people revealed themselves as those in the picture after being informed by the public report that the city is searching for the militia behind the mask in the picture. Gwangju is making its move starting on the 3rd of last month to search for the militia behind masks and take legal actions toward those who distorted the 5·18 and defama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북한군 왜곡 ‘복면 속 시민군’ 찾았다

광주시가 일부 세력을 “광주에서 폭동을 주도한 것은 복면을 한 북한군”이라고 왜곡했던 5·18 관련 사진 속 주인공들을 찾았다.

광주시와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4일 “5·18 당시 복면을 쓰고 활동한 사진 속 시민군 2명을 최근 찾았다”며 “이들을 북한군으로 매도했던 왜곡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방석모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지프에 올라타 있는 사진 속 인물은 임성택씨와 구모씨로 확인됐다. 임씨 등은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복면 속 시민군을 찾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시를 찾아 사진속 인물임을 밝혔다. 이들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이기도 했다. 임씨 등의 행적은 당시 수사기록과 판결문에서도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왜곡, 폄하가 끊이질 않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복면 시민군 찾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섯 개의 작은 점이 연결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연결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점입니다. – 어느 시각장애인의 글